

참된 제자의 길

윌리암 맥도날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True Discipleship

by
William MacDonald

Walterick Publishers
P. O. Box 2216
Kansas City, Kansas 66110

차 례

1. 참 제자가 되는 길	7
2. 헌신	14
3. 모든 것을 버림	18
4. 여러가지 장애물들	28
5. 제자는 청지기이다	35
6. 열심	42
7. 믿음	50
8. 기도	58
9. 선한 싸움	66
10. 세상 지배력	73
11. 비용의 예산	83
12. 순교의 골짜기	88
13. 참 제자가 받는 상	92

1. 참 제자가 되는 길 7

1

참 제자가 되는 길

참 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녁의 한가한 시간이나 주말이나 은퇴기를 바치는 신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님이 전과 같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대상은 목표없이 표류하는 대중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앞서 밟고 간 자기 부정의 길을 쫓아갈 각오가 된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데서 훌려 나오는 불굴의 충성심을 지닌 개개 남녀들이다”(H.A.에반 흉킨스).

무조건적인 헌신만이 주님의 갈보리 회생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은 최소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리라!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요구를 하신다. 하지만 이 요구는 사치한 생활을 쫓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는 아랑곳 없다. 기독교를 다만 지옥에서의 도피가 아니

8. 침된 제자의 길

면 하늘나라의 보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생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즐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제자의 생활에 대한 엄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 나름의 기독교에 대한 사상과 조화시키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병사들이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실을 우리는 수긍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와 땀과 눈물”이 그리스도를 죽는 자의 생활에 특징을 이뤄야 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그것은 거리가 멀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명백하다.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오해할 어떠한 여지도 없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의 구주께서 친히 밝히신 참 제자가 되는 길이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 : 26).

이 말씀은 우리의 친족들에게 적의나 악의를 품으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커서 다른 모든 사랑은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미움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은 “자기 목숨까지”란 말씀

1. 찰 제자가 되는 길 9

이다. 자기 사랑(Self love)은 제자의 생활에 있어 가장 끈질기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2. 자기 부정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마 16:24).

자기 부정이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나 권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자아가 보좌에서 내려 앉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헨리 마틴이 한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주님, 저 자신의 뜻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참된 행복이 외적으로 저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도 조금도 의존되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데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전능자, 내 주 왕이시여!

높이 든 이 손을

주의 손에 굳게 잡으소서.

드디어 이것의 의지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었나이다.

즐거이 드려진 이 손을

주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H. G. C. Moule)

10 참된 제자의 길

3. 의식적인 십자가 선택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 : 24).

십자가는 어떤 육체적 혀약이나 정신적 번민이 아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다. 십자가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이 세상이 볼 때는 하나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길이다. 십자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주었으며 이 세파를 대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치와 팝박과 학대를 뜻한다. 어느 신자이든 세상과 그 길을 본받기만 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

4. 그리스도를 죽는데 드려지는 생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마 16 : 24).

이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었나를 스스로 물어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 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 생활이었다. 그것은 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바친 봉사의 생활이었다. 그것은 극심한 불의 앞에서 인내와 오래참음의 생활이었다. 그것은 열의와 극기와 인내와 은유와 친절과 충성과 헌신의 생활이었다(갈 5 : 22, 2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자취를 쫓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나타내야만 한다.

5.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

1. 참 제자가 되는 길 11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이다. 그것은 허다한 혜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오래 참으며 친절히 대해 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해 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지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분을 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고전 13:4~7). 이와 같은 사랑이 없이는 제자의 생활이 냉냉하고 율법적인 금욕주의가 되고 만다.

6.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생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8:31).

참된 제자의 생활에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 출발을 잘하는 것, 크나큰 명성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실성의 시금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

성경에 대한 일시적 순종은 합당치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꾸준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원하신다.

7. 그리스도를 죽으려고 모든 것을 버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이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달갑지 않은 말씀이며 또 그러므로

12 참된 제자의 길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인기가 없는 구절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신학자들은 그 말씀하신 뜻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고 수없는 이유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순수한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시는 말씀을 의식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말씀은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의 소유를 포기함을 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은 무위도식자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 가족과 자신의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의 생활의 정열이 그리스도의 일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주의 사업에 투자하여 자기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하고 있는 이 때 그는 양심상 그의 남은 자금을 저축해 둘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려 오실 때 마귀의 수중에 들어갈 그의 재물을 모우느라고 그의 생애를 낭비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원한다. 모든 것을 버림에 있어 그는 아무래도 간직할 수 없고 또 그가 이미 포기한 것을 바친다.

이상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일곱가지 길이다. 그 길은 명백하다.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정죄한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 때문에 영원히 은폐되어야 할 것인가? 메시지가 메

1. 참 제자가 되는 길 13

지지를 전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사람은 사람은 거짓되다는 말씀이 공정하지 않은가?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를 모두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용감히 나서자. 그리고 이제부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힘쓰자.

나의 주시여,
저를 주의 문으로 인도하사
원하시는 이 귀에
다시 한번 송곳을 대소서.
주의 명에는 자유이니이다.
주의 곁에 있어
애쓰며 견디며 순종하리이다.
(H. G. C. Moule).

2

한 신

백 여년 전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성경에로의 환원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 운동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두 가지는 신약교회 진리의 회복과 임박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복스런 소망에 대한 작성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하여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운동의 특징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계 만방에 펴뜨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재물, 명예, 사치, 안락한 생활을 모두 포기한 것이었다.

존 넬슨 다비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도락 교수에게 이런 글을 썼다.

“나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셨다는 생각과 오늘날 이른바 기독교계가 깊이 감사를 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주님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레븐힐이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글에 보면 그 다비의 헌신이 어떠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분은 대단한 열심가였다. 높이나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느라고 밤 12시전에는 집에 돌아오는 적이 거의 없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성행하는 때에 그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은 초대 성도들의 생활을 방불케 했다. 중년에는 불란서와 스위스를 도보로 돌아다니며 전도하였고 때로는 도토리 열매로 연명하며 한잔의 우유나 계란 한개로 저녁을 하는 때는 진수성찬처럼 받았다고 어느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뉴먼 씨는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얼굴은 축 늘어지고 눈은 충혈되고 다리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절름발이 였고 수염도 별로 깎지 않으며 낭루한 옷을 입으며 자신을 별로 돌보지 않는 걸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다’. 웰리암 켈리 씨도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남은 짚이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안락에는 무관심하신 분이었고 의복도 소박하고 그것도 낭루해질 때까지 입었다.’

안토니 노리스 그로우브스는 영국에서 돈벌이가 잘되는 치과 업을 그만 두고 인도의 바그다드에 가서 주님을 섬겼다. G. H. 랭은 그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재산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친 결과로 선교일을 위하여 부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날 때는 자기 사유재산이란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로우브스는 후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유명한 소책자를 쓰기도

16 참된 제자의 길

했다.

R. C. 채프만도 세상의 보화를 버리고 소박한 제자의 생활을 하며 주님을趨은 초기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채프만과 사귀던 사람들 가운데는 끼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사람이 여러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자가용 역마차를 둘 만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 외에 J. G. 벨레트, 윌리암 켈리, 죠지 뮐러, 에드워 데니와 같은 사람들도 더 좋은 나라의 보화를 위하여 이 세상의 재물과 지혜를 버린 사람들이었다.

100여년전의 성도들과 함께 하던, 부정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오늘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그 신학적 이유를 우리는 적어도 60여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금욕주의, 극단주의, 광신주의를 개탄한다. 하지만 우리가 탄 마차의 바퀴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이 온다면 그 부흥은 이 그리스도의 헌신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마음이 간절해져서 우리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제단에 갖다 올려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믿음의 실재를 보는 사람마다 그 실재를 간절히 찾아 구할 것이다. 현대에서 산 생활만큼

2. 헌신 17

하나님을 잘 대변하는 것은 없다. 다비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다비를 잘 아는 한 사람은 이런 글을 썼다.

“그는 나로 하여금 내가 소중히 여기던 정치, 경제, 철학 및 과학을 부끄러워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겨 마땅하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한 사람을 나는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것을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 말이다.

3

모든 것을 버림

“❶ 와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백한 뜻이다. 그와 같은 극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어떠하든, 그와 같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역이 어떠하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불변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분의 뜻하시는 바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고부동한 진리를 앞에 나아가 서 보아야 한다.

1. 주님은 사역자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하셨다.

2. 주님은 단지 모든 것을 버릴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버리

3. 모든 것을 버립 19

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다.

3.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재산의 일부만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다.

4. 주님은 재물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빈약한 상태의 제자라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사실상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절대적인 현신의 요구에 대해서 마치 그것만이 성경에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놀라서는 안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 : 19, 20).

주님은 간음과 살인을 금하셨듯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을 금하였다”고 웨슬레는 바른 말을 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눅 12 : 33)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또한 주님은 “…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눅 18 : 22)고 한 젊은 관원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는가?

만약 주님께서하신 말씀이 곧 그분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이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한 바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

20 참된 제자의 길

뉘 주는"(행 2:45)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활이 아니었는가?

인도 바그다드의 초기 선교사가 된 안토니 노리스 그로우브스 부부는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과 그들의 수입 전체를 주님의 사업에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에 관해 그로우브스의 깨달음은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작은 책에 잘 나타나 있다.

C. T. 스터트는 그의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 바칠 것과 부한 젊은 판원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고귀한 기회를 이용할 것을 결심했다. 이것은 흑백과 같이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었다. 그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천만불을 기증한 후 얼마 후면 자기와 결혼할 아내를 위하여 9,588불을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뒤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남편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결혼 시작부터 주님 앞에서 결백하게 시작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돈은 즉각 선교지로 보내졌다.

이와 유사한 헌신의 열정이 짐 엘리웃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3. 모든 것을 버립 21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저를 약하게 만들 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생애, 저의 명성, 저의 재산을 꼭 잡으려는 이 긴장된 손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미에 대한 사랑이라도 잃고 싶나이다. 꼭 잡은 이 주먹을 풀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그것은 결국 제 나름대로 무해 하다고 생각한 동경을 도사리는 계기만 되었나이다. 오히려 저의 손을 폄사 갈보리의 뜻을 (주님처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놓으므로 저도 (지금 저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놓이게 되겠나이다. 주님은 하늘도, 하나님과 동등되심도 의지할 것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나이다. 저의 손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버리면 굶어 죽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한다면 주님의 사업에 자금을 댈 자는 누구인가? 재물을 가진 신자가 없다면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와 같은 논조가 재빨리 잇따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가 주님의 의도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합리적인 생활이며 또 최대의 희열을 낳는 생활이다. 성경의 체험이 다같이 증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22 참된 제자의 길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들보신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게으른 가난뱅이가 아니다.

1. 그는 근면하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2. 그는 검소하다.

될 수 있는 한 경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바친다.

3. 그는 선견지명이 있다.

세상에 재물을 쌓는 대신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그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 노년의 안정을 위해 저축하느라고 자기 생애의 절정기를 바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바치며 미래를 그분께 맡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마 6 : 33).

그에게는 궁한 때를 대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

1. 돈이 당장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을 때 저축한다는 것이 양심상 가능한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요

일 3 : '17).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풍족하고 여유있게 지내면서 이웃 사람이 굶는 것을 보고도 도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호소하며 묻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 은혜를 이 땅덩어리 백개와 바꿀 수 있겠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지 말자”(안토니 그로
우브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박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이 즉각 활용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을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게 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2.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쓰고자 할 마음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주님께 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림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한다.

3.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와 같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입술을 봉하게 할 것이다.

24 참된 제자의 길

4. 지혜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저축 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세상에 보화를 저축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가족들의 장래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욱 악하다고 한다. 이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인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후 12 : 14).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 : 8).

이상의 말씀을 주의깊게 상고하면 그것이 현재의 필요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이며 고린도 신자들은 그의 자녀이다. 그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서 물질을 거둘만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부양한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대목 전체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관계가 있는 것 이지 그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것을 버림 25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 과부들의 친척이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바울은 먼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친척이 없거나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도 문제는 그들의 현재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미래의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눔, 곧 균형있게 나누는데 있다. 현재 당신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후일에 그들의 넉넉함이 당신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상호 평균하게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나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후 8:15).

앞날을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저축하면 되는가를 알지 못하여 난관에 봉착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한정의 재산을 얻으려 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선한 것을 드리는 특권을 상실당한다. 그리고 그 방탕한 생활을 마침 무렵에 가서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했더라도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좌우간 다 공급되었을 텐데”하며 후회하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일에 재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한층 더 활발하게, 한층 더 많이 전파될 것이다. 만약 어떤 형제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것은 다른 제자들

26 참된 제자의 길

이 있는 대로 그 형제와 나누는 기쁨과 특권이 될 것이다.

부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한 신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바울은 육중의 죄수로 있으면서 가이사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빌 4:22). 만약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사소한 일까지 맡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이 문제에 결론을 지어줄 것이다. 좋은 상전보다 위에 있지 않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난하셨고, 보잘것 없으셨으며, 멀시를 받으셨는데 그 주님의 종이 세상에서 부하려 하고, 위대해지려 하고, 존경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조지 풀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한 “가난” 속에는 주님의 고난도 들어있다. 물론 가난이란 반드시 누더기 옷이나 걸치고 더럽게 보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저축할 여유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힘이 없음을 뜻한다.

“… 약 30년 전에 앤드류 머리는 말하기를 만약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실제로 가난하지 않았었다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을 높여 주려하는 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이 먼저 내려오지 않으면 안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게 살고 있다”(A. N. 그로우브스).

3. 모든 것을 버립 27

가정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은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업가는 자기 사업을 운영할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이를테면 자동차와 같은 물질적 소유도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에 언급한 합리적인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검소하고 회생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표어는 모름지기 “열심히 일하고, 적게 쓰고, 많이 바치며, 그리고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어느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없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만약 어느 신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어 전에 없던 헌신의 생활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자만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것이든 갈보리에 비춰볼 때 결코 헌신이 되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래도 간직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이제는 싫어하게 된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현세의 없어질 것을 바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짐 엘리웃).

여러가지 장애물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첫발을 내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피할 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 그가 지고가는 십자가를 가볍게 해줄 유혹의 소리는 그칠 사이 없이 그를 부른다.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를 자기 부정과 회생의 길에서 건져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을 앞세운 3명의 자칭 제자들의 기사에 밝히 드러나 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죽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죽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죽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죽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

4. 여러가지 장애물들 29

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57~62).

무명의 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만났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을 죽고자 하는 강한 내적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과 주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 사이에 제3의 것을 개입시켰다.

1. 성급한 사람

첫번째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겠다고 열렬히 자청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죽으리이다.”

이보다 더 큰 맷가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가시밭 같은 길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대답은 얼핏 생각할 때는 그 성급한 사람의 자청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 하셨다. 사실은 주님의 대답이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죽여 오겠다고 자청했지. 하지만 너는 물질의 안이가 없어도 나를 죽을 마음이 있느냐? 여우들도 나보다 이 세상의 안이를 더 누리고 있다. 새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집이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손수 만든 세상에서 정처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죽기 위해서 가정의 안식처를 회생할 마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안위물들을 버릴 마음

30. 참된 제자의 길

이 있느냐?”

이 성급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세상의 안이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보다 컸다.

2. 나태한 사람

둘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었다. 그는 첫째 사람처럼 자청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주께서 따라 오라고 부르셨다. 그는 그 부르심을 정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그가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뿐이다. 그것이 그의 커다란 죄악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웠다. 그가 한 대답을 주목해 보라.

“먼저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표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정중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뤄드리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당한 경의라도 그것이 주 예수님의 일보다 앞세워질 때는 분명한 죄악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생활의 숨은 야심은 “주여, 나로 먼저…”라는 그의 요청으로 인해 드러났다. 그가 말한 다른 말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코자 하는 그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욕심을 감추려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분명히 그는 “주여, 나로 먼저…”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불합리하며 불가능함을 깨닫지 못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면 그리스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나”라는 인칭대

명사가 보좌 위에 앉아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나태한 사람은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우선권을 두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야 했던 것은 당연했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은 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너는 삼가 구원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고 네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불가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생애의 최대 열정은 이 세상에서 내 일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게 하라.”

이 나태한 사람은 그러한 덧가를 지불하기가 너무 벅찬 것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그는 시간의 무대에서 물러나 이름없는 침묵의 세계로 사라져 버렸다.

첫번째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데 있어 장애물이 물질의 안이였음을 실증했다면 두번째 사람은 직업 혹은 직장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중요 이유보다 앞선 경우를 말해준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는데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땅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신자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

32 참된 제자의 길

자신의 생애를 보내서는 안된다. 직장의 기능이 다만 현재의 필수품을 공급하는데 있는데 반해 그리스도의 생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있어야 한다.

3. 경솔한 사람

세째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을 자청해 쫓겼다고 한 점에 있어서 첫째 사람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는 “주여, 나로 먼저…”라고 불합리한 말을 한 점에서는 둘째 사람과 비슷했다. 그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람의 요구가 그 자체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 자기 친족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며 또 그들을 작별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혈연관계를 개입시켜 그리스도의 지위를 박탈한 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이렇다.

“내 제자들은 너와 같이 자아 중심적이며 맥이 풀린 인물들이 아니다. 나는 가정 관계를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상적인 친척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나를 생애 제일로 여기는 자들을 원한다.”

우리는 경솔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 근심하는 기색으로 걸어 갔다고 부득이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제자가 되고자

4. 여러가지 장애물들 33

하는 그의 지나친 포부는 가족관계라는 바위들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아마 이것은 “네가 나를 두고 선교자로 떠난다면 내 마음은 부서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는 주님을 떠나가므로 자기 생애의 최대 기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비문을 얻은 이 낙심한 친구의 이름을 성경은 다행하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4. 요약

이상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참 제자가 되는 길에 거침이 되는 주요 장애물이다. 이것은 주님의 요구를 받아드릴 마음이 없던 세 사람의 경우에서 잘 나타났다.

성급한 사람-세상의 안이를 사랑한 점

나태한 사람-직업이나 직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점

경솔한 사람-가족 관계를 우월하게 생각한 점

주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자기를 대담하고도 회생적으로 죽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가지 도피의 길은 여전히 간곡한 어조로 당신을 유혹한다.

“네 자신을 구하여야 한다. 그 길을 떠나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34 참된 제자의 길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잊어 버리되
금세 안심 내세 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겠네.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 아주 없도다.

5

제자는 청지기이다

느 가복음 16장 1~13절을 읽어보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원리들을 제시하고 계신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소유와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이 비유에는 잘 터득이 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다. 이 비유는 부정직과 패역을 권장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관점에서 이해가 될 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한 큰 부자가 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의 사업을 돌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 주인은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인은 그에게 사무를 정리하도록 했고 마침내 그는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해고를 당한 이 사람은 자신의 전망이 밝지 못함을 깨달았다.

36 참된 제자의 길

어려운 육체노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늙었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친구들을 확보할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는 자기 채무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내 주인에게 전 빚이 얼마나 되오?”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기름 백밀입니다”라고 했다. “그 절반만 지불하시오. 그러면 완불한 것으로 해 주지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채무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전 빚은 얼마나 되오”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밀 백석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시 “80석만 갚으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당신의 부채가 다 끝난 것으로 해 주지요”라고 했다.

이 부정한 관리인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한 말씀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한다.

“주인이 이 웃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나라”(8절).

우리는 이 부정직한 사무처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것 한가지가 있다. 이 관리인의 주인이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폐역을 칭찬하지 않는 점이다. 그가 해고당한 첫째 이유는 바로 폐역한 이유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속임수와 불성실을 칭찬할 수 없다. 이 비유가 이밖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던 간에 부정착복이 합리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불의한 관리인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다만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그가 미래를 계획했었다는 점이다. 그는 실직 후에라도 친구들을 잊지 않고자 조치를 취했다. 그는 현재를 위해

서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행동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앞날은 단지 그들이 늙어 은퇴하는 때를 가리킬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벌이 잘되는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노년에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지혜로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대한 점이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현재와 무덤간의 시간을 뜻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의 세계를 뜻한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9절).

“불의의 재물”은 돈이나 기타 재물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쓸 수 있다. 우리의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하므로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 여

38 참된 제자의 길

기서 “친구”라고 불렀다.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날이 온다. 우리가 죽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시 하늘로 휴거되는 날이 온다. 그 때 우리가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므로 얻은 친구들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환영 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슬기로운 청지기들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다. 그들은 세상의 안정을 얻으려고 그들의 짧막한 인생을 보내는 대신에 오히려 하늘나라에 갈 때에 자기들의 재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친구들에게 돌려싸이기 위하여 정열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 재물은 성경, 전도지, 기타 복음 문서를 출판하는데 쓰인 재물이다. 이 재물은 선교사들이나 기타 교회 일꾼들을 부양하기 위해 쓰인 재물이다. 이 재물은 복음 방송 및 기타 가치 있는 교회 활동에 쓰인 재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전파를 위해 쓰여진 재물이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가는 그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다. 사치, 재물, 물질의 영화는 그들의 뱃속에서는 쓴맛으로 변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불의의 재물이 하나님의 연금술에 의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을 세세토록 경배하는 경배자들로 변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일을 인생 속에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들은 루터 휘드의 갈망을 어느 정도 체감한다.

5. 제자는 청지기이다 39

“오, ‘앤워쓰’ 시에서 온 한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맞아 준다면
나의 천국은 임마누엘의 나라에서
두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이아몬드도 진주도 황옥도 은행의 예금도 보험
도 사치한 집도 유람선 및 사치한 자동차도 불의의 재물에 지나
지 않는다. 이상의 것들이 자아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들은
사용과 동시에 없어져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진다
면 영원토록 이익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재물을 다루는 방법, 재물을 붙잡는 정도는 우리의 인격에 대
한 시금석이 된다. 주님은 10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에 대한 관리이다. “충성된
자”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축복
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안락과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재물)에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큰 것”(신령한 일)에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불의의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전 4:1).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이 점을 이렇게 한층 더 강조하신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40 침된 제자의 길

로 너희에게 말기겠느냐?"(11절).

세상의 재물은 참된 것이 아니다. 세상 재물의 가치는 끝이 있고 일시적이다. 영적 보화가 참된 것이다. 그 가치는 측정될 수도 없거니와 무한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관리하는 일에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현세에서의 영적 변성이나 하늘나라에서의 보화를 맡겨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또다시 주님은 이 점을 이런 말씀으로 부연하셨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12절).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탁(神託)이다.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연구하며 봉사하는데서 얻은 열매들이며, 하늘나라에 가서 신실하게 청지기의 일을 수행한데 대하여 받는 보상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받을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가운데 들어가거나 내세에서 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강하게 요약하셨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13, 14절).

충성은 나눠일 수 없다. 한 제자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5. 제자는 청지기이다 41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한다. 만약 그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임을 명심하라.

6

열 심

제 자가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부족할 경우에 는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만약 제자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지 않다면 그는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고 말씀하신 분을 죽는 자들이다. 그들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익을 위한 열심으로 사무쳐 계셨다. 주님의 열차에는 냉냉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발디밀 자리가 없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하셨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50).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잊지못할 주님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세례 요한이 가졌던 열심도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증거

되어 있다.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요 5:35).

사도 바울도 열성가였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열열한 생애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사도 바울은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염려도, 세상의 성공에 대한 바람이나 욕망도, 세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목숨에 대한 염려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있지 않던 분이었다. 그는 계급이나 국적이나 환경을 초월한 분이었다. 그는 단한 가지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일념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다. 그는 한 가지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신 분이며 또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

그는 말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죽을지언정 말한다. 그는 육지나 바다, 돌밭이나 길없는 광야로 급히 돌아다니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아끼지 않았으며 중단하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그는 높이 외쳤고 대양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도 그는 잠잠하지 않았다. 그는 의회 앞에서나 왕들 앞에서 진리를 대변하였다. 그의 목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밖에 없었다. 칼이 그의 목을 베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말하고 그는 기도하며, 그는 증거하고 그는 고백하며, 그는 권하며 그는 싸우고, 마침내 그는 잔악한 사람들 을 축복했다.”

44 참된 제자의 길

이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C. T. 스타트는 언젠가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고싶다고 하지만 나는 지옥의 문전에서 구령사업을 하고싶다.”

그리고 다음은 C. T. 스타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도록 충격을 준 어느 무신론자가 쓴 글이다.

“만약 내가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대로 금세에서 종교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내세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굳게 믿는다면 종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폐락을 배설물처럼, 세상의 염려를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헛된 것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다. 종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떠오르는 나의 첫번째 명상이 될 것이며, 저녁에 잠이 나를 무의식 상태로 인도하기 전까지 남는 나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다. 나는 단지 종교의 도리 속에서만 일할 것이다. 나는 단지 영원만을 위해 생각할 것이다. 나는 천국으로 인도한 한 영혼을 평생 고생할 만큼 가치있게 생각할 것이다. 세상의 일들이 내 손을 정치시키거나 내 입술을 봉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곳 세상의 희노애락이 잠시도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직 영원만을 그리고 조만간에 영원히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질 내 주위에 있는 영원불멸의 영혼들

6. 열심 45

을 애써 생각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파할 것이며 또 내가 전할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가 될 것이다.”

요한 웨슬리도 열심가였다. 그는 말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밖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백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나는 전세계를 회개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봉화(烽火)였다. 어느날 그는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히 1:7)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

“나는 불불혀질 수 있는가? ‘하나님, 저를 석면 심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꽃이 되도록 성령님의 기름으로 폭 적셔주시옵소서!’ 하지만 불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그대는 이 짧막한 삶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으로 사무치셨던, 단명(短命)의 삶을 사신 위대하신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저로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연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세기 교회의 수치는 공산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무색케 하고 있는 점이다.

1903년에 열일곱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한 사람이 전 세계를

46 칠된 제자의 길

상대로 공격을 개시했었다. 그의 이름은 레닌이란 사람이었다. 1918년이 되자 그의 추종자들은 4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 4만명을 가지고 소련의 1억 6천만의 인구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 운동은 근래까지 계속되어 한때 공산주의자는 세계인구 3분의 1 이상을 지배하기도 했었다.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의 윤리는 배격해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공산주의로 귀의한 한 미국인 대학생이 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빌리 그래함이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가책을 받았다.

그는 자기 약혼녀에게 왜 자기가 그녀와 약혼을 파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자율은 높다. 우리는 총살, 교살, 폭행, 투옥을 당한다. 중상과 조소를 받으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뿐 아니라 그밖의 모든 면으로 불행을 당한다. 우리들 중 얼마가 살해를 당하거나 투옥된다. 우리는 실제로 기난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생활 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버는 돈 전체를 당에 바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영화관이나 음악회나 불고기나 홀륭한 집이나 좋은 자동차를 위해 쓸 시간이나 돈이 없다. 우리는 ‘광신자’들이란 말을 들어왔다. 우리는 광신자들이다. 우리는 ‘범세계 공산화 투쟁’이란 대 목표를 가지고 생활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많은 금전을 가지고도 소유할 수 없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그만 우리

6. 열 실 47

개개인의 자아를 대인류 운동에 헌신한다. 만약 우리 개개인의 생활이 고달프거나 우리의 자아가 당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적게나마 인류를 위해서 새롭고 참되고 보다 훌륭한 것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업이요, 나의 종교요, 나의 취미이며, 나의 애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주식이다. 나는 낮에는 공산주의에 종사하고 밤에는 그 꿈을 꾼다.

공산주의가 내게 주는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는 대신에 점점 커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를 조종하며 인도하는 이 힘에 공산주의를 부합시키지 않고는 우정도 연애도 심지어 대화도 계속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이나 서적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그들이 공산주의에 주는 영향과 공산주의에 대하는 태도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는 사상문제로 이미 형무소 생활을 해 오고 있는 터이다. 필요하다면 나는 사살대 앞에 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위해서 이정도 헌신할 수 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그들의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봄바쳐 일해야 하겠는가! 진정 주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면 주님은 우리의 모두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만약 기독교의 도리가 다소라도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48 찹된 제자의 길

면 기독교는 영웅적으로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Findlay).

모든 제자들은 자기 생활에 열의가 절대로 필요함을 마음에 새겨두자. 그는 라일이 묘사한 다음과 같은 이상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종교에 열렬한 사람은 뛰어나게 한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이다. 열렬한 사람을 가리켜 진지하고 진실하고 비타협적이고 철저하고 정성스럽고 심령이 열렬하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열렬한 사람은 단지 한가지 일만을 바라본다. 그는 한가지 일만을 염려한다. 그는 한가지 일만을 위해 산다. 그는 한가지 일에만 도취된다. 그리고 그 한가지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든지 사람을 거스리게 해주든지,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를 받든지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존귀를 받든지 부끄러움을 받든지 열렬한 사람은 이 모두를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는 단 한가지의 일을 위해서만 마음이 불탄다. 그리고 그 한가지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불태움 속에 불타고 있다면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만족할 것이다. 그는 동불처럼 자기가 불태움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느낀다. 그리고 만약 그 속에 타버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정렬을 쏟을

6. 열 십 49

영역을 발견한다. 만약 그에게 설교할 힘이나 일할 능력이나 헌금할 돈이 없다면 그는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렇다. 만약 그가 항상 병상에 누워있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므로 자기 주위에서 죄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그가 여호수아와 같이 골짜기에 내려가 싸울 힘이 없는 경우라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던 일을 할 것이다(출 17:9~13). 만약 그가 몸소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그는 주님께서 도와주사 일을 성취할 때까지 주님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열심’의 뜻이다.”

믿 음

살 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속 깊이 또는 아무 주저함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 참된 제자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위해 공적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북북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연약한 사람들로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허드슨 테일러).

그런데 참된 믿음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근거되는 법이다. 이 이치가 중요하다. 신자는 어떤 주님의 약속을 듣거나 읽는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방법으로 약속을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심어준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분의 신실성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약속이 아니고 계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막 14:29).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막 16:15).

믿음은 가능의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힘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믿음은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오관의 기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죠지 물러).

믿음은 말하기를 “만약 불가능만이 반대하다면 그것은 이루 어질 수 있다”고 한다.

“믿음은 무대 위에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다.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는다. 믿음의 판단에는 하나님을 모든 문제와 모든 난관의 해결자가 되신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룬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60만불이든 60억불이든 조금도 관계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두 가능하신 분임을 안다. 믿음은 모든 자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불신은 말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고 한다. 불신은 ‘어찌’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믿음은 일만개

52 참된 제자의 길

의 ‘어찌’에 단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다”(C.H 매킨토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롬 4:18~21).

믿음, 위대한 믿음은
약속을 보고 하나님만 쳐다본다.
불가능을 비웃고 외치는 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눅 1:37).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창 18:14).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막 9:23)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내

“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고 기뻐한다.

의심은 장벽을 보나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깜깜한 밤을 보나
믿음은 낮을 본다.
의심은 발자욱을 내딛기 두려워하나
믿음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물으나
믿음은 내가 믿노라고 대답한다.

믿음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때 상식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었다(히 11:8). 여호수아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없이 여리고 성을 공격한 것은 통찰력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수 6:1~20).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신적인 행동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했다. 사실 믿음이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 또 있겠는가?

거짓말이나 실수나 과오를 범할 수 없는 분을 믿는 것이 광신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각있고 온건하고 이성에 맞는 일이다. 믿음은 어두움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또 그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

54. 참된 제자의 길

음이 헛되었다고 증명한 사람은 없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모험 따위가 아니다.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만한 분으로 정당히 대접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요일 5:10). 불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가로 막는다(시 78:41).

믿음은 만주의 주되신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진토 속에 머리 숙여 겸비하게 탄원하는 자로 취급하는 인간 본연의 태도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반대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아니함을 상기시켰다(고후 5:7).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생활 수단으로 삼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간의 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믿음의 생활은 그것의 정반대이다. 그것은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끈임없이 주님을 의뢰하는 위기이다. 육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데서 돌이 키려 한다. 육은 가능한 손길을 막으려고 부드러운 방석을 준비하고자 한다. 육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할 때는 완전히 신경질적인 허탈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진하고 환경을 초월하며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한 제자라면 누구나 자기의 믿음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조만간에 그의 모든 인간

7. 믿음 55

적인 수단은 끝장이 난다. 그리고 극한 곤경에서는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유혹을 받는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에게 자기의 궁핍을 알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떠난 것이 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므로 내가 사람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을 개입시킴으로서 내 영혼이 받을 부요한 축복을 박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빼앗아 가게 한다”(C. H. 매킨토쉬).

제자의 정상적인 태도는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자 열망하는 것이다(눅 17:5).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는 주님께 의탁한 그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질병과 시련과 슬픔과 가족의 사별을 당할 때에 한층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게 됨으로 그의 믿음은 굳건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으로 알면 알게 될수록 그는 더 큰 일을 위하여 한층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56 참된 제자의 길

다고 하셨으니 제자는 주야로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함으로 자신을 성경말씀 속에 푹 적시기를 사모하여야 한다. 성경은 제자의 지도요, 나침판이요, 안내자요, 위로요, 등이요, 빛이다.

믿음의 생활에는 언제나 진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읽을 때 우리는 끝없는 대양의 해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음을 깨닫는다. 믿음의 공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32절로 40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이들은 회통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육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

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제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공상가, 또는 광신자로 취급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미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을 주는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정당한 값을 매길 수 있는 힘도 준다”(C.H. 매킨토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기 도

기 도의 주제로 쓰여진 책들 가운데 온전히 마음에 드는 책은 오직 성경 뿐이다. 그 밖의 다른 책들은 들어갈만큼 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갈만큼 올라가지 못한 느낌을 준다. 이 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만 요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가장 훌륭한 기도는 강한 내적 요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생활 환경이 평온하고 평범할 때 우리의 기도는 쉽게 우둔해지고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위기나 위험한 순간, 위독한 병이나 사람을 잃은 참기 어려운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열렬해지고 활력이 생긴다. 어떤이는 “하늘에 닿아 맞을 화살은 완전하게 굽혀진 활로부터 발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긴박감, 무력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식적인 느낌은 가장 훌륭한 기도들이 탄생하는 모태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궁핍에서 벗어나려는데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다. 우리는 지혜있는 경영방법을 쓴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금을 마련해 놓는다. 우리는 순전히 인간적인 지혜로 재물을 더하여 마침내 없는 것이 없는 풍족한 단계에 이른다. 그 때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낫고 힘을 잃었는지,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지 의아해 한다.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 우리의 기도생활은 혁신될 것이다.

2. 성공하는 기도의 여러가지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히 10 : 22).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뜻이다. 어떠한 위선도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 조건에 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우리가 어느 신앙활동(사업)을 위해 자금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 훌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쓰고자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는 안된다. 이슬람교도들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가 드려졌다. 그러나 만약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아마도 기독교의 선교사역은 한층 더 고무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60 참된 제자의 길

3. 기도는 간단해야 하고 믿음으로 의심없이 드려져야 한다.

우리는 곧잘 기도의 신학적인 문제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은 단지 영감을 둔화시킬 뿐이다. 기도에 관련된 모든 비밀들을 해결하느니 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신학박사들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단순한 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도록 하라.

“옹답이 어떻게 올런지 나는 모른다.
한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 열렬한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소식이 언제 올런지 나는 모른다.
분명히 아는 것은 응답은 곧 온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라.
내 기도한 축복이
내 생각 그대로 올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내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맡김은
그분의 뜻이 내 것보다 현명함이라”
(L. C. 헨슨).

4. 기도의 참된 능력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나서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죽으라.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는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5. 하나님은 학생의 기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 같다.

8. 기 도 6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시던 그 주님과의 사귐을 즐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밤새워 기도할 정도로 진지한 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즐긴다. 아무런 희생도 들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은 단지 값싼 기독교의 부산물일 뿐이다. 신약성경은 빈번히 기도를 금식과 관련시키고 있다. 금식은 영적 관심을 일으키는데 귀중한 조력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금식은 정신을 맑게 하며 집중시키며 예민하게 하는 일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필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기도를 폐하고 응답하시는 것 같다.

6. 이기적인 기도를 피하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4 : 3).

우리의 기도의 주된 관심은 주님의 이해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7.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고 큰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커다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자. 얼마나 빈번히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적음으로 인해 주님을 민망스럽게 했던가! 우리는 그렇게 사소

62 참된 제자의 길

한 승리, 그렇게 보잘것 없는 공적, 보다 차원 높은 그것들에 대한 그렇게 미약한 기대로 만족해 왔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인상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주의를 끌고 또 우리의 생활을 볼들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더라’고 사도 바울에게 언급된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언급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E.W. 무어).

8.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 : 14, 15).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 : 13, 14).

8. 기 도 63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 : 23).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마 18 : 19, 20).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주님에 의해서 기도로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을 뜻 한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이시고 주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복된 뜻대로 구하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성품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내가 기도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를 풍겨야 한다. 주님은 더욱 더욱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란 말을 덧붙이지 않고 기도를 끝맺을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전 내용이 예수님의 복된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에 따라서 충만되어야 한다”(S. 리다웃).

64 침된 제자의 길

9. 우리의 기도생활이 참 효력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신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의식한 순간 즉시로 죄를 자복하고 벼려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 : 1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 : 7).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 : 22).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자 한다면 올바른 영혼의 상태는 불가피한 것이다.

10. 우리는 하루의 생활 중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이 자발적 기도의 전형적인 실례이다(느 2 : 4).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그곳에 거하는

8. 기도 65

것은 복된 것이다(시 91:1).

11.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내용은 분명해야 한다.

분명한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기도는 굉장한 특권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배운다.

“기도라는 경이의 세계에서 기적을 행하는 직분이 우리 손에 맡겨졌으니 이 무슨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춥고 음산한 곳에 햇빛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우리는 절망의 옥중에 소망의 등불을 켤 수 있다. 우리는 죄수의 수족에서 쇠고랑을 풀어줄 수 있다. 우리는 비록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하늘의 강심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은 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기적들이다” (J.H. 조웰).

이 말씀에 웬ham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전도는 희귀한 은사다. 그러나 기도는 더 희귀한 은사다. 전도는 대검처럼 거의 맞닿을 만큼 접근하여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그리고 멀리있는 적들에게 사용할 수 없지만, 기도는 대포처럼 사정거리가 한층 더 먼 것이므로 어떤 때는 효력이 훨씬 더 있다.”

선한 싸움

신 약성경을 읽는 이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 싸움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즐거운 연회장 같은 오늘날의 교계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사치와 일락이 횡행하는 풍조와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쓴 싸움이며 지옥 세력과의 부단한 투쟁인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이미 싸움에 임했으며 결코 돌아서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소금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1. 싸움은 단결을 요구한다.

사소한 다툼이나 분파적인 시기나 섬기는 일이 서로 나누이는 따위의 일을 할 틈이 없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군사들은 반드시 뭉쳐야 한다. 뭉치는 길은 나를 낫춤으로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2장은 이 교훈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과 다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투는 데는 두편이 있어야 한다. 다툼에는 오직 교만이 따라오는 것이다. 교만이 없는 곳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다.

2. 싸움은 엄격하고 희생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언제나 중대한 싸움에는 광범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 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싸움 중에 있고 모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머지를 모두 싸움하는데 공급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여기에 어느 젊은 제자의 진귀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1960년 그는 크리스챤 학교의 신입생 회장이었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관례적인 학급 파티, 다과회, 그리고 선물마련 등에 쓰이는 비용을 겉우어 쓰기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직접 바쳐지지 않는 이같은 돈을 승인하는 대신 회장직을 사임했다. 다음은 그가 사임하는 날 동료 급우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친애하는 급우 여러분!

학급내 파티와 다과회, 선물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우리 급우회에 제기된 아래로 저는 학급 회장으로서 이같은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바침으로써 바로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일이

68. 찹된 제자의 길

아닌 어떤 다른 일에 쓴다면 이는 매일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전세계의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위배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만 더불어 모이며 이 좋은 교제를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시켜 돈과 쾌락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허비하는 대신에 아직 주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계의 60%나 되는 사람에게 혹은 심지어 우리 이웃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국내외의 형제들을 돋는 데 아주 유익하게 돈이 쓰여져야 할 특수한 곳과 기회를 알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 쓰일 학급내의 비용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가령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에게 복음과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같이 남에게 하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의 속에 거할까 보나?’

그러므로 저는 급우 여러분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라며 이로써 저의 희장직 사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3. 싸움은 고난을 요구한다.

오늘날 짚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할 진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더욱 자신의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회생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실로 전부를 주시는 것이다. 일신의 안전이나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따위의 생각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됨을 방어하는 변호로 자신의 가문이나 교육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위해 받는 자신의 고난을 내세웠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짖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 11 : 23~28).

디모데에게 준 그의 고귀한 충고의 말에서 강권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딤후 2 : 3)라고 했다.

4. 싸움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진실한 군사는 이의나 주저함 없이 자기 상관의 명령을 준행한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서 주님은 자신을 따라 전쟁터에 나온 모든 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준행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

5. 싸움에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다. 그는 열렬히 믿음을 가지고 끈기있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같이 함으로써만 적의 요새가 무너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데 능숙해야 한다. 적(사단)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로 하여금 검을 떨어뜨리도록 꾀를 쓸 것이다. 적(사단)은 성경의 영감성에 의심을 던질 것이며,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며, 과학과 철학과 유전을 가지고 반대의 이론을 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군사는 마땅히 자신의 위치를 굳게 지키고 서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무기는 세상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효력이 증명되었던 그 전술을 오늘날 군사 지도자들은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기드온의 보잘것 없던 그 군대가 조소를 받기에 딱 알맞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물매들과 그후 수세기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군병, 그 어리석은 자들로 구성된 보잘것 없는 군병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신령한 마음은, 하나님이 많은 군대의 편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9. 선한 싸움 기

여 이 세상의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안다.

6. 싸움에는 적에 대한 지식과 적의 전략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엡 6 : 12).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 : 14, 15).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가장 악하게 대적하는 자가 술주정뱅이나 강도나 창녀가 아니고 오히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도 그들이었다. 초대 교회를 펍박했던 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바울도 가장 잔인한 공격을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받았다. 그후로 줄곧 그같은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말을 하며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사랑의 연민으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복음을 향하여 중요심으로 가득차 있다.

7. 싸움에는 마음의 나님이 없어야 한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얹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 : 4).

72. 찰된 제자의 길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영혼과 주님 사이에 끼어드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에게 걸림이 됨이 없이 엄격하며 예의에 어그러짐이 없이 굳세다. 그는 오로지 한 열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밖의 모든 것은 복종시켜야 된다.

8. 싸움은 위기에 부딪칠 때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엡 6:13, 14).

예배소서 6장 13~18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에는 등을 위한 방비가 없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실 후퇴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면(롬 8:37),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면, 그리고 싸움을 이기기 전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후퇴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10

세상 지배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력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한갓 식료품 상인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기업체에서 사소한 일꾼으로 종사하며 생애를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주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시키셨다. 사람은 위엄과 권한으로 옷 입혀졌는바 그것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지위였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 자신의 것이 된 통치권을 상당히 박탈당했다. 그리하여 그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불확실한 세계를 불안정하게 지배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우리는 어느 면에서 이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 권한은 사나운 개들이나 독사들을 지배하는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을 우리의 유업으로, 온 세상을 우리의 소유로 주장하는 권한이다.

74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제국주의는 도덕과 영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권력이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의 광채로 마음을 얻어 통치하는 것이다”(J. H. 조웰).

사실상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위엄은 아담이 결단코 알지 못한 바였다. 우리는 세상을 구속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자들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기름부여 존엄한 생활을 하게 하며, 자아를 이기게 하며,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D. T. 영).

오늘날 우리 삶의 큰 비극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고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우리는 하찮은 것을 구하느라 정신을 팔거나 사소한 것들에 전념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날으는 대신에 기고 있고 왕의 신분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나라들을 청구하는 환상을 이긴 이가 드물다.

스펄존은 예외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이런 힘찬 글을 써 보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음 전파자로 삼으시고자 할진 대 네가 일개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복음 전파자로 합당하다면 나는 네가 일개 왕을 목표로 천하게 정신을 파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든 왕과 모든 귀족과

10. 세상 지배력 75

모든 왕관을 합해도 그것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위엄과 그리스도를 위해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특별한 명예와 비교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다른 하나의 예외는 유명한 복음 전파자 잔 아트이다. 미합중국 쿨리찌 대통령이 그에게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일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빌리그레함은 또 하나의 예외를 말했다. 스텐다드 석유회사는 극동 지구에서 일할 사람을 찾다가 선교사 한분을 지사장으로 보내고자 했다. 그들은 그에게 1만불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이번에는 다시 1만 5천불을 제의했다. 그는 거절했다. 5만불을 제의했다. 여전히 거절했다. “왜 그러십니까?”라고 그들이 물었다. 그는 “당신들이 제의한 보수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직업은 저에겐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가장 고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는 우리 자신을 연관공이나 과학자, 학자, 치과 의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하지 말자. 그와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밖의 것들은 그저 생계의 수단으로 볼

76 참된 제자의 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막중한 사명이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렇다. 과연 막중하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의 막중함은 세계를 다음과 같이 축소한 그림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만일 상상해서 세계의 현재 인구를 한 마을에서 사는 1천명의 집단으로 줄여 본다면 (현재는 50억이 넘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생생한 그림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인구는 60명이 되고 나머지 전 세계 인구는 940명으로 나타난다. 그 60명 미국인은 마을 전체 수입의 35%를 소유하고 940명은 나머지 65%를 소유한다.

그 마을에서 36명의 미국인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24명은 아니다. 마을 전체로 보면 290명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710명이 그렇지 않다. 마을에서 적어도 80명이 골수 공산주의자이며 370명이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다. 전체 마을에서 70명이 신교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있다.

마을에서 303명이 백인이고 697명이 유색인이다. 60명 미국인 평균 예상 수명이 70세이고 나머지 940명은 40세 이하이다. 미국인은 1인당 소유(재산)가 여타 국민들의 소유의 15배 반이고 그들은 마을 전체 식량의 16%를 생산하여 그중 1.5%를 먹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저장 설비를 만들고 장래용으로 비축해둔다. 나머지 940명

10. 세상 지배력 77

은 굽주리고 있으며 인세나 먹을만큼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임을 상기해 볼 때 그같은 식량 공급의 불균형과 더구나 막대한 양이 현재 비축되어 있으므로 생긴 상황은 아주 뚜렷해진다. 더욱기 미국인들은 식량 소비의 최적량보다 72%를 더 먹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남은 식량을 무상으로 주어버리면 식량 저장을 위해 드는 비용 만큼 저축할 수 있지만 그같은 짓은 머리가 모자라는 자선 행위하고 생각하고 있다.

60명의 미국인은 전체 마을의 전력 공급량의 12배를, 석탄은 22배를, 석유는 21배를, 강철은 50배를, 그리고 일반 시설 장비는 50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인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비미국인들 중의 상류층 사람들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미국인들은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병들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의 절반이 글을 해독하지 못하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이 칼 마르크스에 대해 듣고 있다"(해리 스미스 리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은 오직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과업을 달성하는 길은 오직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헌신 그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바

78 참된 제자의 길

치는 회생을 어떤 것이라도 크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한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므로 해서 멸망할까봐 자기의 재산을 소비하고 자기 몸까지 소비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제게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게도 주옵소서! 또한
저의 마음을 당신께 가장 가까이 두어 보호하시고 잃어진
자를 당신께 인도하도록 저에게 사랑을 주소서! 갈보리의
순전한 사랑을…”(제임스 A. 스튜어트).

만일 사랑이 일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얻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리하여 섬기는 일이 소리 나는 구리나 울리는 팽파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사랑이 앞서 행할 때 그리하여 주님에게 불타는 현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세력도 복음 전파의 위세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 무리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자. 주 예수님께 완전히 팔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며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땅과 바다를 가로지르며 지칠 줄 모르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전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영혼을 발견하며 그들 각인을 구주를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얻고자 탐내는 제자들, 이 다른 세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가?

신약성경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두개의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 첫째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복음 전파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복음 전파이다.

첫째 방법은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이같이 우리는 시장에서, 감옥에서, 회당에서, 해변에서, 강의 제방 곁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던 것을 발견한다. 복음이 긴박하고 최상의 특질을 지닌 까닭으로, 재래식 집회 장소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두번째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사용한 방법이다. 주님은 이 일단의 작은 무리를 그와 더불어 있게 하기 위해, 또한 그들을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 날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그들의 앞에 할 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임명하신 것이다. 주님은 미리 그들에게 앞으로 당할 위험과 어려운 난관들을 자세히 일러 깨우쳐 주셨다. 주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하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그러나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에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같이 해서 주님은 그들을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 권능을 받아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구주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가 큰 것임은 배반자로 인해 11명으로 줄어든 그 소수의 무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방법을 썼을뿐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

80 참된 제자의 길

금 그같이 하도록 강권했다.

“또 네가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그 첫째 단계는 주의깊게 그리고 많은 기도로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다. 다음은 그들에게 영광의 비전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이들을 보내어 또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마 28:19).

수에 욕심을 내고 많은 군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무미하고 지루하게 보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봄소 하시는 일을 아시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자신에 만족한 대부대의 종교인들보다는 헌신한 소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정해진 일정한 원칙을 준행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야 할 어려운 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지혜로 사용한다. 동시에 그들은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무도 그들로부터 육체적 폭력을 당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직 그들의 기도와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중거를 인해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 세계의 정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

들은 자신들이 어떤 통치 형태나 정치적 이념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정부 아래서도 일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증거(복음 전파)를 타협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는 그 정부에 충성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이 강요되면 그때에는 그와 같은 결과에 복종하고 따르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절대로 인간의 정부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거나 혁명을 기도하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의 대사요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인 것이다. 그들은 하는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정직하며 어떤 종류의 속임수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따위의 세상적인 거짓말을 그들은 거절한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설사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양심적이어서 범죄하기 보다는 죽는 길을 택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불변의 원칙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지역 교회에 기초하여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추수할 밭인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로 변화된 영혼을 얻는다. 그러나 얻어서는 그들을 지역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 거기서 그 영혼들은 강해질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참 제자들은 지역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세우신 단위이며 홀륭하고 가장 지속적인 사역은 이런

82 참된 제자의 길

방법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제자들은 자기를 얹어매는 각종 희합을 피하는 지혜를 가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어떤 조직체에 의해서도 지배받는 일을 단호히 거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본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확신과 권면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그와같은 권면을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는 표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굳게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고자 애쓴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적에게 자신의 전략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허세부리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일을 한다. 그들은 하늘나라가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알아보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안다.

비용의 예산

주 님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 대중 사역에 힘쓰신 적도 없다.

이와 달리 주님은 사람들이 폐를 이루어 죽을 때마다 그들에게 돌이키사 제자 직분의 엄중한 조건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을 가려내셨다.

어느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 먼저 비용을 예산해야 할 것을 경고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일을 시작한 후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눅 14:28~32).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집을 세우는 일 또는 전쟁하는 것에 비유하셨다.

주님은 망대를 완성할 만한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나 회생을 치루며 구별(성별)된 생활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의 길로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잘 출발한 연후에 좋은 기후와 사나운 기후, 윤택한 형편과 어려운 형편, 즐거운 때와 슬픈 때에 부딪혀 날이 갈에 따라 점점 해이해져 가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판적인 세상은 지켜보고 있다. 이상스럽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세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조소하고 비웃고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깊이 존경한다. 반면에 열이 식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는 멸시할 뿐이다. 그들은 조소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짓기만 시작하고 완성은 못했구먼. 거듭나는 때는 떠들썩하더니만 이젠 우리나라 매 한가지구먼. 시작할 때는 속도가 대단하더니 이제보니 조용하구먼”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비용을 예산하는 것이 좋다”고

11. 비용의 예산 85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번째 예는 상대 편에 선전포고를 하려는 한 왕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먼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천명으로 그 두배를 가진 상대방의 병력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앉아 계산해 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먼저 선전포고를 해놓고 양편의 군대가 서로를 향해 진격할 때에야 와서 다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뿐인 것이다. 흰 기를 올리고 항복을 고하는 사자를 보내어 비굴하게 강화조건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무서운 적이 있다. 세상과 육과 마귀가 그것이다. 또한 치열함이 있다. 피흘림이 있다. 고난이 있다. 잠못자는 긴 피곤한 시간이 있다. 낮의 빛을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다. 눈물과 노력과 시험이 있다. 그 위에 매일 매일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엣세마네와 골고다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비용을 예산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거나 아니면 불명예와 비굴을 뜻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항복하고 마는 것뿐이다.

이 들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고 선빨리 결정하려는 것을 경계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팁박과 시련과 슬픔을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선 비용을 예산해야 한다!

그러면 비용은 무엇인가? 그 다음절 말씀이 해답을 준다.

86 참된 제자의 길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 : 33).

비용은 모든 것, 즉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이다. 구주께서 이러하셨기 때문에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것에 덜 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한 분으로서 자진해 가난하게 되셨거늘 그분의 제자들은 그보다 덜한 방법으로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눅 14 : 34).

주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순수한 소금이 없었던 듯하다. 그 소금에는 모래 따위의 불순물이 섞인 것이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 무의미하고 쓸 데 없는 짜꺼기만 남게 되는 수가 있었다. 그것은 흙으로도 거름으로도 사용될 수 없었다. 때때로 길을 내는데 쓰였다. 그같이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마 5 : 13).

이같은 예가 보여주는 바는 명백하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하나의 중심 목적은 주님께 생활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함으로써, 자신의 생애와 재능을 무가치한 세상 일에 팔려 땅에다 보물을 쌓게 되면 그 맛을 잃게 된다.

만일 신자가 자신의 존재의 중심 목적을 잃게 되면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된다. 그는 공리주의자(사람들이 잘 살도록 애쓰는 사람)도 못되며 장식주의자(걸치레와 형식 또는 여가삼아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못된다. 그의 생애는 마치 맛을 잊은 소금처럼 사람의 발에 밟힌다. 웃음을 사고 멀시 당하며 조소를 받는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자주 어떤 강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주님은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말씀을 들을 때 임의로 해석하여 주님의 본래의 명백하고 분명하게 갈라놓은 명령을 흐려버릴 것을 아셨다.

반면에 주님은 노소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엎드려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열어 놓아 두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은 자들은(들은 그 사람들은) 비용을 예산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주 예수님 쫓기로 마음 정했네.

함께한 자 없어도 나 따르리,

이 세상 뒤로하고 십자가 앞에 보며

들이킴 없으리, 들지 않으리!

12

신고의 글짜기

자신을 주님께 부탁한 사람에게는 생사 문제가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관심사일 것이다. “존과 베티 스텝의 승리”라는 책을 읽어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마음이 짐 엘리웃의 글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휴튼 대학의 학생 시절에 쓴 일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오카스인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아버지 원하시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가져다가 당신의 불에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제것으로 따로 두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제것이 아니니이다. 그것을 가지소서. 주님, 전부를 주님이 취하소서. 이 세상을 위해 제 생명을 모

두 불사르시옵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부어질 때에만 가치가 있나이다.”

많은 주님의 쓰임받은 종들이 아버지와의 교제 중에 이와 동일한 자리에 들어간듯하다. 그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 : 24) 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밀알이 되기를 원했다. 이 자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 : 24)는 말씀에 부합된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더욱더 합당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생명은 전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생명은 귀한 피로 사신 주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분의 것을 자기 것처럼 고수할 수 있겠는가. C. T. 스타트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내것이 아니라 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구속이란, 값을 주고 되찾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인 나 자신을 도둑질하여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 가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90 칠된 제자의 길

둘째로 만약 주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대신에 세상의 여행을 쫓다가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짐 엘리웃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바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째로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면 주님이 가신 것보다 더 안락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C.T.스타트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회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회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을 개의치 않고 벼림으로 우리 이웃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아낀다는 것은 범죄이다. 사람들은 때로 의학 연구를 돋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공한다. 어떤 이들은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려다 목숨을 잃는다.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내 눈에는 저 군중이
영혼처럼만 보이누나.
정복자가 되어야 할 포로된 영혼들,
왕이어야 할 노예인 영혼들이

모두다 비어 있는
불확실한 희망을 안고
슬프게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는구나!

그 순간, 급하게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나팔소리처럼
내 몸을 스쳐가는구나.
‘아들을 구원하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라!
목숨을 바쳐라!
모두를 헌신하라’는구나!”

(F. W. M)

모두가 순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화형, 창, 단두대 등은 특수한 몇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밀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열심, 순교자의 헌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 이미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십자가를 질 때나 면류관을 쓸 때,
무지개가 뜰 때나 천둥이 울릴 때,
내 영혼과 육체를
주께 드리오니 쓰시옵소서!”

참 제자가 받는 상

주님에게 바친 삶은 그 자체가 큰 상이다. 주님을 따르는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다. 구주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요”라고 되풀이 해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 말씀은 4복음서에 주님의 다른 어느 말씀보다도 자주 반복되고 있다(마 10:39, 16:25, 막 8:35, 뉘 9:24, 17:33, 요 12:25). 왜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자주 반복되었을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중의 하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생명은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하여 아끼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 바치면 얻고, 구원되고, 기쁨을 얻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나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현실 밖에는 얻지 못한다. 주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최선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자유임을 체득하는 것이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13. 참 제자가 받는 삶 93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길에는 자유가 있다. 제자는 사소한 일이나 혹은 일시적인 일 때문에 수령에 빠져들어 가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일에 관심을 두며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세상에 염려할 것들을 적게 가지는 사치를 즐긴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끊임없이 죽는 자 같으나 계속해서 산다. 정벌을 당하나 죽임을 당치 않는다. 슬픔 중에도 기뻐한다. 자신은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고후 6: 9, 10). 참 제자의 삶이 금세에서 영적으로 가장 만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내세에서도 최대의 상을 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말 16: 27).

그러므로 금세와 영원에 있어 진실로 복된 사람은 월리암 보덴과 같이 “주님,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나이다. 제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정결케하시고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근본 진리를
존 리치/128면/값 1,800원

주 예수님이 재림
존 리치/128면/값 1,800원

애굽에서 기나긴끼지
존 리치/160면/값 2,800원

광이의 성막
존 리치/160면/값 2,800원

여호와의 7절기
존 리치/86면/값 1,200원

그리스도인의 믿음-교회
J. R. 리틀포드/198면/값 2,0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 I. 코풀드/96면/값 1,4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자침
밀리암 맥도널드/96면/값 1,2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킬 노트2세. 밀리암 맥도널드/96면/값 1,2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밀리암 브럼/28면/값 1,5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풍/46면/값 1,200원

신약에 강추어진 교리적인 비밀들
T. 앤스트 월슨/142면/값 2,800원

바울과의 함께
H. A. 아이언사이드/96면/값 1,200원

모임에 대한 성경의 윤리
밀프리드 P. 길스/84면/값 1,200원

간추린 교회사
A. E. 혼트론/96면/값 1,200원

황금의 접-성막(윤색 사진 31편)
J. 로우/96면/값 3,000원

성경은 헤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220면/값 5,000원

성령님의 역사
애너스트 타담/96면/값 1,5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P. E. 할로우/128면/값 1,800원

순례하는 교회(교회사)
E. H. 브루우드 베트/488면/값 9,0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밀프리드 P. 길스/464면/값 8,5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예배
밀프리드 P. 길스/240면/값 4,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
밀렉산더 스트리우크/384면/값 8,200원

교회는 하나님의 통과할 것인가?
E. W. 로저스/128면/값 1,7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니단 J. 스顿/200면/값 3,400원

제사장 의복
C. W. 슬레이민/208면/값 3,500원

예언자와 우리
밀용민/240면/값 3,8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溫 히클/360면/값 6,500원

핵심 설교 노트
밀리암 로저스/498면/값 9,0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밀리암 맥도널드/112면/값 2,000원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리버/242면/값 4,500원

주님의 만찬
알프레드 P. 길스/256면/값 4,400원

매일의 묵상
밀리암 맥도널드/448면/값 8,500원

나그네의 소가
이춘원/304면/값 4,800원

성령충만한 가정
핀걸부/144면/값 2,800원

결혼과 가정
A. J. 히긴즈/160면/값 3,200원

밀리야·밀리사
C. E. 터당·V. D. 트링글/144면/값 2,800원

구원의 영원성과 난해구절 해설
박준형/96면/값 1,700원

진리의 열과 미륵의 영
박준형/96면/값 1,700원

영원을 개선하는 삶
밀리암 맥도널드/128면/값 2,5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 M. 프레이저·송기설/40면/값 900원

베드로의 시역과 증거
R. E. 헬로우/96면/값 1,200원

이스라엘과 유다 완돌
밀리암 로저스/126면/값 2,500원

세계선교-전면전
E. L. 맥스вел/208면/값 3,500원

뜻의 떠와 길이오니
찰스 스트리우크/192면/값 3,800원

교수도서와 함께 찾는 글종

사하리의 시내들
홀스 앤 미쉬/256면/값 4,400원

작은 여인
글래디스 아일리드/176면/값 3,000원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112면/값 2,300원

햇빛나라
크리스티나 몬이/176면/값 3,000원

복자는 소녀병
M. L. 로스필리/64면/값 1,100원

립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윌리엄 윌리엄즈/104면/값 1,000원

만일 나에게 등전 한 푼만 있다면…
H. Wayne Kiser/96면/값 1,200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길리안/64면/값 900원

아이언사이드의 생애
E. 셀러 링글리쉬/240면/값 3,800원

윌리암 보네이의 생애
해워드 테일러/220면/값 4,500원

나의 아르메니아 나의 하나님
도나타 디아이어/90면/값 3,000원

하나님의 도성을 찾은 히브리인들
루다이 박스네이즌/320면/값 4,000원

숨은 보배(조선시대 한 정장이의 간증)
새생명의 사귐을 만드는/116면/값 2,500원

변화된 강도
홀스 루캐쉬 양역/64면/값 1,100원

주님 위해 끝까지 밟는 사람들
리차드 베일리드/128면/값 2,600원

시베리아로부터의 말총
개르하르트 힙/96면/값 1,700원

아린미를 꾸며 찾는 책

극히 값진 진주(만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빌리도의 보고서(만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이침에 만나요(만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두 형제(만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아리이 전로역정(상)
준 번역/272면/값 4,300원

아리이 천로역정(하)
준 번역/190면/값 3,200원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길
안나 포터 리아드/128면/값 1,700원

또 다른 소녀
J. C. 노글필드/96면/값 1,200원

눈보다 회개
O. 월튼/144면/값 1,700원

종교에서 생명으로(만화)
이광희 글·그림/128면/2,400원

감자편에서 온 꽈수(중국선교 간증문)
지오프린 T. 퀴/144면/값 2,800원

아린미를 위한 심지가 이야기
이미모도 스기히로/86면/값 1,700원

참된 제자의 길

-
- 발행일 : 1993년 11월 10일 1판1쇄 발행
1996년 3월 15일 1판2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암 맥도날드
 - 옮긴이 : 편집부
 - 발행인 : 이치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정 가 : 1,800원

 - 패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721-8 03230